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생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JW그룹이 '생명존중(生命尊重)'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외학술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세상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를 찾습니다

장애인 문화 예술 재능을 지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는 인재를 키워줍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시상 사업]

JW그룹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성천상'을 제정했습니다. 성천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해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생명을 아름답게! [문화·복지 사업]

노인시설, 사회복지단체 등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미술 문화의 발전을 위해 'JW Art Award'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행복하게! [장애인 지원 사업]

중증 장애인으로 구성된 홀트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와 전통 음악단체인 '관현맹인통예술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어르신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경제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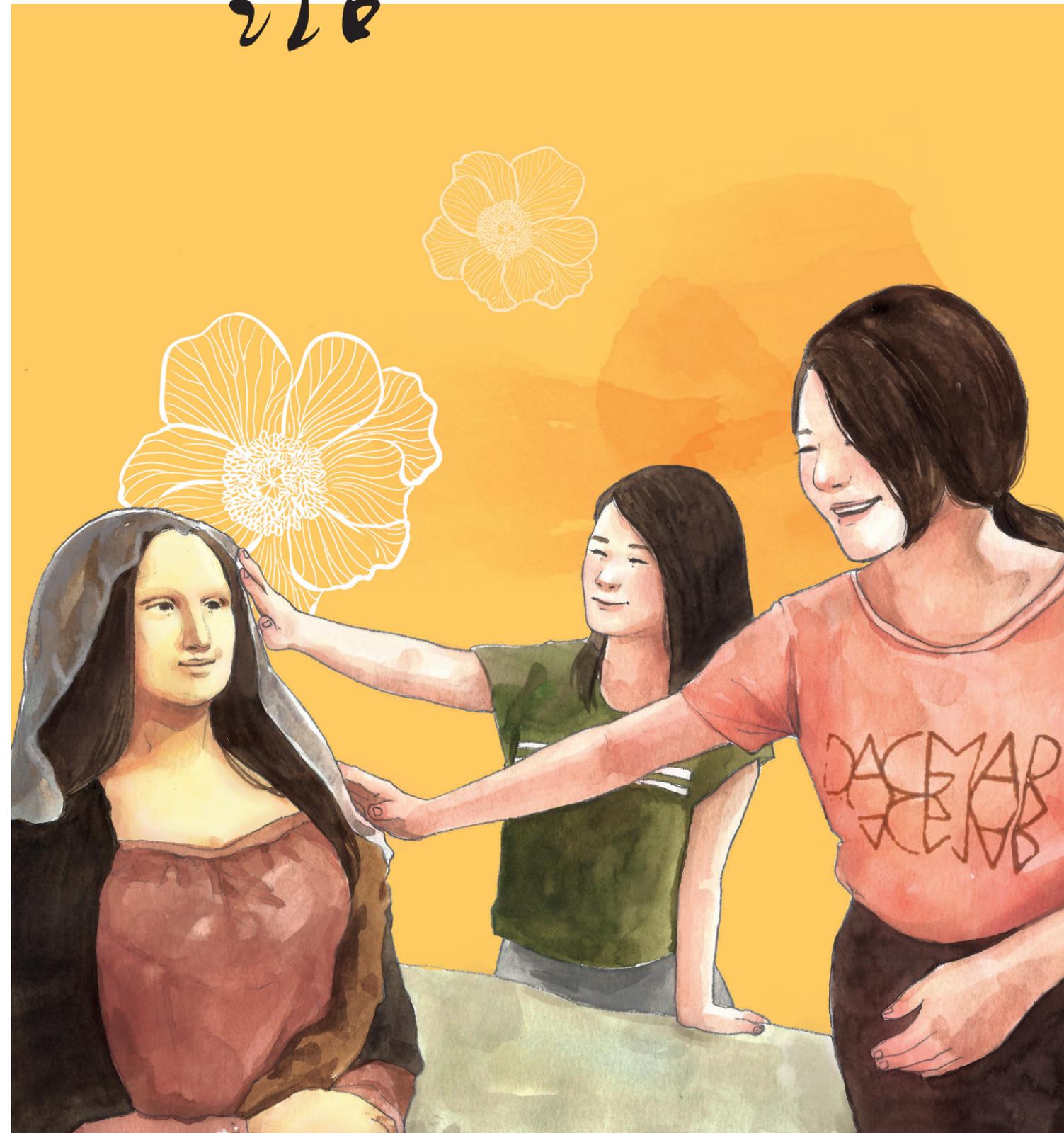
생명을 가치있게! [학술·장학 사업]

복합이탈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자금 후원 및 통일캠프 책임기모임, JW그룹체험, 재단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의료연수교수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전문의들에게 국내 선진 의료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문의: 중외학술복지재단 사무국 02)840-6941

이웃을 내 몸 같이,

제호의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넘어서 희망, 사랑, 행복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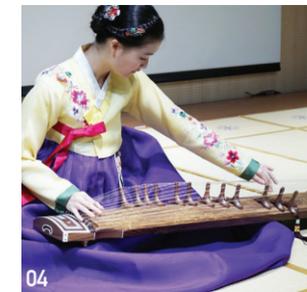




제호 격월호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6년 9월 20일 통권 127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김은애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880.0500 FAX 02.887.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2275.6960

07+08
July August

Contents



- 04 **포커스**
음악통합캠프 '소리통(通)'
2016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
- 08 **새소식**
축각명화전 'Feeling Art!'
- 10 **희망나눔**
'사람이 희망이다' - 카페모아 서울여성프라자점 최인미 바리스타
- 12 **사랑나눔**
'깨끗함을 나누다' - 양블랑
- 14 **해피스토리**
2016년 7월~8월 사업 현장
- 18 **미리보기**
2016년 10월~11월 행사 및 광고
- 19 **나눔플러스**
2016년 7월~8월 후원 안내

멀리서 본다 -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 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국악통합캠프'부터 '소리 통(通) 연주회'까지

눈 대신 소리로 통하는 세상

눈 대신 소리로 통하는 세상이 있다. 소리와 소리가 통하고, 마음이 오가고, 꿈이 자라는 세상이 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설리번학습지원센터의 야심찬 프로젝트, 2016 시각장애학생 국악통합캠프 '소리 통(通)'에서 펼쳐진 특별한 이야기, 그 현장을 스케치해본다.

READY 국악통합캠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7월 26일(화)부터 30일(토)까지 전문 국악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음악교육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본 음악캠프는 실제로 대학 입학의 패거리를 이루는 등 여러 성과를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통 음악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음악 교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인재 발굴을 위하여 참가학생들을 철저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했는데, 최종 오디션에 합격한 6명의 학생들과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예비단원 2명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가야금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시각장애학생으로는 최초로 국립전통예고에 입학한 김보경(고2)학생도 있었는데,

김보경 학생은 "많은 친구와 선배들의 판소리,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계기로, 힘들지만 더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캠프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명의 아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원, 환경,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변종혁 교수(관현맹인전통예술단 예술감독), 박인기 교수(한양대 국악과 대우교수), 김성아 교수(한양대 국악과 교수), 원진주 강사(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정수인 강사(백석예대 국악과 강사),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단원 등 많은 분들이 함께했는데,

시각장애 국악예술단으로서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관현맹인전통에

술단원들은 시각장애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연주자로써 갖추어야하는 기본 소양 등 실제적인 조언도 나누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에서는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비장애 대학생들이 멘토로 함께 했는데, 2016 국악통합캠프만의 또 다른 차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는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선배로써 실제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며, 이는 음악 전공을 희망하는 참여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대학생 멘토들에게도 색다른 봉사활동의 경험 뿐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대학생 멘토로 참여했던 이예린(한양대 가야금 전공)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기보



다는, 오히려 내가 배우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도전으로 다가왔다. 언젠가 같은 무대에서 연주자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악통합캠프 세부 프로그램은 멘토링 레슨(마스터 레슨/멘토 레슨), 합주(그룹별/전체), 특강(관현맹인전통예술단/국악 이론), 리허설 교육, 대학 탐방 및 합숙, 음악회 및 수료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멘토링레슨, 합주를 통해 실제적인 음악 교육에 집중하고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단원들과 강사분들의 특강으로 프로그램의 격을 높였습니다. 또한 여러 번 함께 맞춰본 합주와 리허설은 실제 무대에 선 것 같은 긴장감을 주었고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갔습니다.

생텍쥐페리는 '배를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모아오게 하거나 일을 나누어주지 말고, 끝없이 광대한 바다를 갈망하게 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처럼 학생들에게 더 큰 꿈을 꾸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교를 직접 탐방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학교 탐방 이후, 실로암오양원에서 진행한 합숙시간은 참가자와 멘토들 간에 친밀감을 더해주고 사적인 얘기도 두런두런 털어놓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변종혁 예술감독은 "이번 국악통합캠프는 국악분야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는 만큼,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캠프로 진행하였다. 음악적 소질을 가진 시각장애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올리고 멘토와 멘티와의 긴밀한 상호 교류 과정을 통한 개인적 성장 또한 이루어졌다고 본다. 무엇보다 추후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일원으로 세워지길 주목하는 바이다."라며 본 음악캠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ACTION '소리통(通) 음악회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함께 연주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음악회였습니다.

이날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기악합주 '유초신지곡 中 타령', 해금독주 '지영희류 해금산조', 창극 '춘향가 中 사랑가' 등이 있었는데, 처음 큰 무대에 선 학생들은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지만, 누구보다 힘 있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멘토, 참가 학생들이 모두 나와 우리나라 대표민요인 '아리랑 연곡'을 연주했는데, 무대 위 연주자들이나 관객 모두가 한 마음으로 따라 부르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국악통합캠프에 교수진으로 참가했던 박인기 교수(한양대 국악과 대우교수)는 "지금까지 많은 공연을 다녀왔지만 오늘 공연처럼 감동을 느낀 적은 없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라고 공연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음악회 이후,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악통합캠프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되었는데, 수료증을 받는 학생들 얼굴에 드러난 성취감과 자신감은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전문국악인을 꿈꾸는 시각장애 학생 8명, 절대적인 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적은 수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선 가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만들 수 없던 희망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수백, 수천,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투입한 에너지와 힘은 한 명, 한 명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엇으로 남아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희망에 투자합니다

- 2016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 개최
- 시각장애대학생 21명에게 5,870만원 전달

그 나라의 청년을 보면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시대 청춘들의 삶은 고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그들의 삶이 곧 시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효명장학사업은 시각장애 청춘들의 미래를 지원한다.



효명장학사업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성이 반듯한 시각장애인 인재를 발굴하여 능력 있는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관 사업으로는 2010년도부터 진행하였지만 그 시초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7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전신인 맹인선교부를 설치하여 점자성경책과 점자찬송가 10만부를 보급하고, 맹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자통신강좌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신학생과 전도사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장학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83년부터는 신학생과 전도사들에게 지원하던 장학금을 대학생들에게로 확대하여 그때부터 2003년까지 약 970여명에게 장학금만 5억원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이 무척 어려운 시절이라 전도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하는 날은 전국의 시각장애대학생이 다 모이는 날이 되었고, 이 수여식 날을 계기로 한국시각장애대학생을 조직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2010년 '효명장학사업'으로 재시작한 이후로는 2016년 상반기까지 시각장애인 대학생 189명에게 약 6억9천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 2010년 26명에게 98,500,000원 지원
- 2011년 27명에게 117,114,991원 지원
- 2012년 42명에게 174,280,186원 지원
- 2013년 34명에게 110,583,111원 지원
- 2014년 25명에게 72,500,000원 지원
- 2015년 23명에게 71,783,604원 지원
- 2016년 상반기 12명의 학생들에게 43,78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21명의 학생에게 총 58,711,664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특별히 더 많은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김건철 장로(3천만 원), 아모그룹 김병규 회장(2천만 원), 실로암안과병원(5백만 원), 김선태 목사·김정자 사모 가정(5백만 원), 한샘재단(3천만 원), 슈퍼리어재단 김귀열 이사장(2천만 원), 명지춘혜병원 장혜실 이사장 등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8월 25일(목)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학금을 후원한 내빈 및 장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시각장애인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는데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는 "누군가를 돕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돕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름다운 도움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희망을 준다. 오늘 이곳에 모인 효명장학생들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돕는다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선배 장학생 김동현(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연구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 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했을 때, 그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 또한 만들 수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주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선배로서 좋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효명장학금을 통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한 김동현 연구원은 후배 시



각장애장학생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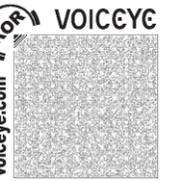
한편, 두 번째 효명장학생으로 선발된 김한솔 학생(건국대 경영학과)은 "어렸을 때, 시력을 잃고 부모님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어려움을 겪었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도움을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동기부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누구보다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날 효명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김지선(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바이올린 전공), 이한희(제주대학교 영어교육학과)의 3중주 연주, 김지연(수원대학교 국악학과/관현맹인전통예술단 예비단원)의 판소리 등 효명장학생들의 끼와 흥이 넘치는 연주 시간도 준비되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 선율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김지연 학생의 구성진 판소리는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흥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효명장학사업을 통해 배출된 시각장애인 리더들이 사회에서 좋은 모델로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앞으로도 효명장학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 진학을 독려하고 나아가서는 제3세계에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하며 "또한 선발된 학생들이 차세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조직인 효명리더스클럽을 발전시켜 시각장애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정호승)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그 자체가 희망이 되어, 세상에 희망을 주는 효명장학생들이 되길 응원합니다.





feeling art

exhibition

영화작품을 촉각으로 느껴요!

모나리자는 세계 누구에게든 통용되는 하나의 개념이다.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말하면, 굳이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머리 속에 그것이 그려지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혹은 미술은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언어이며 소통의 도구이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미술로 소통할 수 있을까?

'시각장애인들도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술은 아직까지도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귀로 들을 수 있고 신체 활동도 비교적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기능 활용이 필수적인 미술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미술 제작 활동을 코칭하거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3D프린팅을 이용하여 입체 자료를 정교하게 재현하는 등 미술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영역에 있어서 색이나 복잡한 그림 표현은 여전히 난제인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리번학습지원센터 촉각교재제작팀에서는 다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촉각교재를 제작·지원함으로써 촉각교재 제작 노하우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화를 손으로 느껴서 인식할 수 있는 촉각영화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번 촉각 영화는 총 6명의 국내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촉각 수작업과 3D프린팅을 접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중섭, 밀레, 고희,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잔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 총 11점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촉각영화는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제작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삼성SDS 임직원, 추계예대·송실대·성균관대·서울미고 학생 등의 여러 봉사자들이 한 땀 한 땀 오리고 자르고 붙여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수학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미술교과에 있어서도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촉각교재를 통해 연상학습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계기로 더 많은 교과 영역에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촉각교재를 지원할 것이다."라며 말하며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교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번 촉각영화전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적 콘텐츠는 물론, 대체도서 제작이 더욱 활성화되어가길 기대합니다.



1 영화: 물고기와 노는 세아이 작가: 이중섭, 아크릴 재료: 레진, 천, 휴일 제작: 추계예술대학교(홍성현, 이수빈)	2 영화: 이삭줍는 여인들 작가: 장 프랑수아 밀레 재료: 레진, 천, 베이삭, 아크릴 제작: 삼성SDS(이정은, 정혜진)	3 영화: 해바라기 작가: 빈센트 반 고희 재료: 천, 풍선, 플라스틱 컵, 아크릴 제작: 삼성SDS(명지연, 장혜진)	4 영화: 모나리자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재료: 레진, 천, 가발, 아크릴 제작: 삼성SDS(이지현, 서혜미)
---	---	---	--

완성된 촉각영화로 현재 3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했는데요. 청계천 광고갤러리, 설리번학습지원센터 도란도란 갤러리, 삼성SDS타워. 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 주시고 방문해주셨습니다.

#01

다리
밑에서
열린
촉각 영화
전시회

일시: 2016년 7월 20~24일
장소: 청계천 광고갤러리

청계천 광고갤러리에서 개최한 첫 번째 전시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를 다녀가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시: 2016년 8월 8~12일
장소: 도란도란갤러리, 학생점자도서관 1층

설리번학습지원센터 도란도란갤러리에서 개최한 전시회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영화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2

촉각으로
영화를
만나요
내부전시

#03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삼성SDS와
함께 하는
촉각영화전

일시: 2016년 8월 18~31일
장소: 삼성 SDS타워 지하 1층 카페인

촉각영화를 창조한 하나의 손길, 삼성SDS 봉사모임과 연계하여 삼성SDS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세번째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임직원 반응

- 권*석: 멋집니다. 재능과 아이디어와 열정이 모이니 감동을 주네요.
- 황*기: 진정한 의미의 재능기부네요. 눈을 감고 만져보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너무 궁금하네요! 오랫동안 전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 방금 지하1층에서 보고 왔는데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 봉사팀의 재능과 노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 안*숙: 특이한 전시네요! 시각적으로만 느끼던 그림을 촉각으로 느껴본다니~

press

촉각영화전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 또한 컸는데요. 언론,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10회 이상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촉각영화와 시각장애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카페모아 (서울여성플라자점)
최인미 바리스타

29세, 꽃다운 나이였다. 하룻밤 사이에 시각장애인이 된 최인미 바리스타. 원인불명의 희귀병이기에 타할 사람도, 붙잡을 희망도 없지만 그녀의 삶은 희망차기만 하다. 희망 그 자체로 살아가는 최인미 바리스타를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카페모아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로로 카페모아에 입사하게 되었나요?

실로암과의 인연은 아주 우연찮은 계기였어요. 제가 2년 전에 희귀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그게 레버시라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RP(망막 색소변성증)라고 잘못 생각했었고 그 후, RP캠프에 따라갔다가 두 살 어린 동생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었고 바리스타 과정이 시작한다면 저에게 추천해줬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어 바리스타 교육을 수강하고 지금은 카페모아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게 된 거죠.

2014년도에 레버시우전신신경병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딱 재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안과에 갔더니, 당장 큰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5~6일을 입원해서 한 30여 가지 안과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병명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기며 수소

문했죠. 한 10군데 정도 갔을 때, 희귀병(레버시우전신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왼쪽 눈이 아예 안 보였다가 다시 조금씩 보이더니, 다음엔 오른쪽이 안 보였어요. 결국은 양쪽 다 레버시였어요. 그때부터 3개월 후부터는 전면이 아예 안 보였어요. TV채널 잘 못 틀어놓은 것 마냥 점이 되게 많고 점 색깔도 9~10가지 정도 되고요. 그래도 아직은 주변 시야가 남아있어서 눈을 위로 올려서 보면 사람들 얼굴이 다 보여요. 그런데 일부러 정면을 보고 대화해요. 사람들과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거든요.

선천적 시각장애나 갑작스런 사고도 아닌, 전혀 알지 못했던 희귀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어서 정말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 병이 거의 남자가 70% 정도 걸리고 여자가 걸릴 가능성은 10%도 안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불운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요.

사실 눈에 이상이 있다고 느꼈을 때부터 3~4개월까지만 해도, 제가 시각장애인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매달려 보고 나

름대로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해결할 수가 없었죠. 달리 희귀병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5개월까지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9년 정도를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막 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점이라서 더 암담했던 것 같아요. 5개월간은 집 밖을 나오지도 않았고 눈도 계속 감고 있었어요. 눈을 떠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일어나도 다시 자버리고,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서 계속 먹다보니까 한 8kg가 순식간에 쪼여요.

지금은 굉장히 밝으시고 웃음도 많으신데, 어떻게 극복하시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나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거나, 아니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극복 계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대신 슬퍼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래도 가장 큰 계기라고 하면, 실로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이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기초재활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



최인미 씨는 지난 9월 20일(화)에 열린 2016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성남시 대표로 실내조정 복식 경기에 나가 우승을 차지했다.

어요. 혼자 바로 앞을 가는 것도 무서워하던 저였는데, 어떤 힘이 작용을 했는지, 매일 훈련을 위해 성남에서 봉천까지 2시간 거리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기초재활훈련을 통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차근차근 훈련을 받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초롱이(기초재활훈련생 동기)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도전받았어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친구예요. 병명도 똑같고 희귀병에 걸리게 된 시기도 비슷하고, 제가 이렇게 다시 밝아지게 된 건, 그 친구의 덕이 가장 커요. 기초재활훈련생 중에 초롱이가 제일 어렸는데, 그래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교육생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위안도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제가 그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면,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까지는 돈에 많이 연연하면서 살았어요. 주변에서 악착같다, 악바리다, 억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돈도 모아봤어요. 그런데 눈 안 좋아지면서, 눈 치료에 기간 모은 돈을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이제는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아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크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지금은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고, 저한테 투자하고 누리고, 나머지만 조금씩 모으는 정도로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미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충분히 영위하면서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으로 '오늘도 파이팅하자!'하고, 잠들기 전에도 '고생했다, 인미야!'하고 토닥여줘요. 솔직히 운다고 해결될 것도 없고 우울해한다고 해결될 것도 없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이 있다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다요. 1순위, 2순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보고 싶어요. 바리스타는 직업이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지금도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기 중 하나가 운동을 통해서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성남시 대표로 조정 선수 훈련을 받고 있어요. 육상 선수도 하고 있는데, 이번년도에는 육상이 잘 안 돼 서(웃음). 운동선수생활도 계속 하고 싶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이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도전하며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봤을 때, '진짜 이런 사람도 있어?', '대단하다'하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해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해요. "저는 시각장애이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초행길이라서 길을 못 찾겠다 싶으면 역무원님께 말씀드려요. 제가 시각장애이인데, 좀 도와달라고, 눈이 안 보이는 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저와 같은 시각장애이분들도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말고 무조건 도전하세요. 도전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 도전을 함으로써 본인도 뿌듯하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뿌듯하고 모든 생활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기억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최인미 바리스타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는 바로 카르페디엠(carpe diem), '현재를 살아가라'는 뜻이다. 서른을 막 지난 그녀와의 만남은 삶을 깊이 통찰한 어떤 성자와의 만남으로 느껴졌다. 눈이 안 보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당당함이 있었다. 현재를 완벽하게 살아내는 그녀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언젠가 '최인미'라는 이름이 희망의 대명사로 떠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리라, 기대해본다.

최인미 님
시각장애 1급
장애발생시기 14년도
희귀병(레버시우전신신경병증)



깨끗함을 나누다 앙블랑

interviewee: 김수현 대리

뭐가 달라도 다른 기업이 있다. 차별성은 목적의식에서 온다. 제품을 만들 때도, 나눔을 실천할 때도, 진정성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명품브랜드 앙블랑의 진정성 있는 나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앙블랑에서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물품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이후 3차에 이어 물품을 기증해주셨고 이는 바자회, 한마음축제 등 복지관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앙블랑이 어떤 기업인지, 앙블랑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앙블랑은 나눔과 아이중심경영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과 나눔을 실천하는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앙블랑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 en(아기)와 blanc(하얀 : 깨끗한, 순수한)의 합성어로 깨끗하고 순수한 아기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름에 걸맞게 아기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만들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중 안전장치인 '더블세이프정책(Double safe)', '유통기한6개월표시제', '무로리콜제'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 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앙블랑에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후원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을 단순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을 방문하고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희 앙블랑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동시에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사업 명칭을 '119 사랑나눔 아기구조대'라고 하시는데, 이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사업의 취지나 의미에 관해서 설명해주세요.

'119 사랑나눔 아기구조대'는 매월 순이익의 1% 기부, 물티슈 생산량의 1% 기부, 매월 9시간 전 직원이 봉사활동을 펼치는 앙블랑 '사랑나눔 119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아동복지시설에 정기적인 물티슈를 기부하는 등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창립 이래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는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진정한 의미의 '119 사랑나눔'을 펼쳐, 이 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점자가 새겨져 있는 물티슈를 전달해주셨는데요, 점자 물티슈는 어떤 계기를 통해 제작되었나요?

올 초 '사랑나눔 119프로젝트' 활동의 하나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앙블랑 제품에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도, 수익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행복할 수 있을

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분들도 저희에게는 고객이기에, 어떻게 그분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의 결과로 점자 물티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점자 내용은 뭔가요?)

'사랑해요 아기물티슈 앙블랑'입니다.(웃음) 저희 물티슈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캡을 여닫을 때마다 행복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어요. 더불어 일반 고객들도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담았고요. 현재는 앙블랑 전 제품라인에 적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 직원들이나 내부적인 분위기나 반응(보람, 기쁨 등)은 어떤가요?

'상당히 좋다.', '매월 기다린다.'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직장인들은 바쁜 업무로 인해 개인적인 봉사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평소 봉사에 관심이 있어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직원들이 업무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앙블랑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요즘은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눈부시고 화려하고 편리합니다. 자기 자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거리가 넘쳐나는데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는 소외된 이웃들도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업과 소비자, 단순히 사고파는 이해관계에서 나아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아기물티슈 앙블랑' 물티슈 캡에 새겨진 이 문구의 주어는 여러분입니다. 저희 앙블랑은 제품 캡에 점자를 표기한 것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으로 다가갈 겁니다. 또한,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과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복지관

감동과 어우름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01 시각장애학생 취업캠프 '잡헌팅캠프' 07.04~06**
고용지원센터는 KT&G 상상유니브와 함께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취업캠프를 개최했습니다.
- 02 아태지역 '장애청년드림팀' 기관방문 07.11**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하는 아태지역 '장애청년드림팀'이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 03 래프팅 프로그램 07.13~14**
문화체육지원센터에서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래프팅 체험장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레저스포츠인 래프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04 2차 고객모니터링단 회의 실시 07.12**
2016년도 2차 고객모니터링단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고객모니터링 단원 7명이 참석하여 1차 회의 후 조치사항을 나누고, 프로그램과 시설환경에 관한 칭찬 및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05 수상스키 프로그램 08.23~24**
문화체육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가평 수상스키장에서 대표적인 하계스포츠인

- 수상스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06 양불량 3차 후원물품 전달식 07.2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양불량 기업으로부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물품(물티슈_25박스)을 기증받았습니다.
- 07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보사전 제작 08.24**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각장애로 정보접근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과 특별히 여성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담아 자립생활정보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 08 자립생활기술훈련 쿠키교실 05.26~08.18**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법반찬을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쿠키교실을 5월 26일부터 8월 18일(매주 목요일)까지 총 12회기로 진행하였습니다.
- 09 CCC프로젝트 6월~11월**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선택권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집단동료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학습지원센터

감동과 어우름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01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공연활동**
• 7월 공연활동_01,04,08,15,20,21,30
서울 율현초등학교, JW중외학술복지재단 런치콘서트, 한은국제포럼, 휘경중학교, 둔화문 개관전 공연, 중앙사회복지관, 소리통음악회
• 8월 공연활동_04,05,11,18,22,23,30
제4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남도국립국악원,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 양천구자원봉사센터, 대전청사공연, 대전맹학교, 실로암안과병원30주년기념공연
- 02 서양음악-미디작곡교실 07.05~08.09**
음악재활아카데미 서양음악교실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18회차 특강으로 미디작곡교실을 진행하였으며 수업을 통해 교육생의 목소리가 담긴 멋진 자작곡이 탄생되었습니다.
- 03 원어민 회화교실 3월 둘째주~7월 둘째주**
시각장애인의 지적 욕구 충족과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3월부터 7월에 걸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원어민 회화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 04 음악재활아카데미-서양음악교실 07.12**
다양한 음악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시각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재활을 돕고자, 드럼교실, 바이올린교실, 보컬교실, 색소폰교실, 성악교실, 일렉 기타교실, 통기타교실, 플루트교실, 피아노교실, 하모니카교실 등 10개의 서양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5 보조공학기기 대여식 08.27**
하반기 보조공학기기 대여식에서는 총 16명의 대여자가 참석했으며, 기관 및 주요프로그램 소개, 실로암포네와 룩스데이시 소개, 협약서 작성, 기기 수령 및 교육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01 맘파워 프로젝트 따뜻한 세상

• 가족복아트체험
2016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맘파워 프로젝트 맘 (mom)편한 세상-SeasonⅢ' 중 시각장애부모 가정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복아트체험을 실시 하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함께 북아트로 가족앨범 만들기를 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오감만족책놀이
'용기모자', '커다란 사과가 데굴데굴' 등의 그림책을 읽고 도서를 활용한 다양한 책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02 **우리가족 파워업3 가족캠프_07.16~17**
설리번학습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사회복지기금사업 '우리가족 파워업3' 가족 캠프인 '우리가족 행복여행'을 강원도 강릉으로 다녀왔습니다.

03 **학부모글쓰기코칭(다이어리)_08.02/04**
학부모 글쓰기코칭 교실에서 다이어리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은 시각 장애학생을 가진 부모와 봉사단체인 청사모 어머니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04 **사회탐구독서교실(속담으로 배우는 우리 문화)_08.02~11**

여름방학 특강으로 사회탐구 독서교실 '우리 문화야, 속담을 알려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속담을 배우면서 그와 관련된 옛사람들이 쓰던 물건, 음식, 하던 일, 절기 등 옛 문화도 함께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05 **작가와의 만남(전래동화)_08.09**
권문희 작가님과 함께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도깨비와 일본의 오니를 비교해보고 함께 클레이로 만들어보는 등 도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06 **제2차 북콘서트_08.11**
실로암점자도서관에서는 박진영 작가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07 **3D핑거맵, 아시아 3대 디자인상 'K-디자인 어워드 2016' 위너 수상_08.19**
촉각교재제작팀에서는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K-디자인 어워드 인터내셔널 2016' 시상식에서 '위너(WINNER)'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하게 된 '3D핑거맵'은 한양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제작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적인 촉지도로, 3D프린팅을 통해 입체적인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시각장애인들이 편의를 위해 터치를 통해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제작된 촉지도입니다.

08 **어휘력향상 한자교실_08.02~11**
어휘력향상 한자교실은 한자자격증 8급에 해당되는 교재를 통해 단어 및 사자 성어의 뜻까지 배우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로암 직업재활시설



01 직업훈련사업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종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으로는 컴퓨터활용전문가 양성훈련, 바리스타카페창업훈련, 안마지압창업훈련, 베이커리창업훈련, 장애인점역 교정사 양성훈련 등이 있습니다.

02 이동 직업평가_07.05~06, 12~14

직업평가센터에서는 부산맹학교, 인천해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학습능력 진단 및 직업재활 계획수립을 위한 직업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능력을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03 한식조리콘서트 요리시연회_08.24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4차 요리시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식조리콘서트'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서 지원하는 시각장애인의 신직종개발을 위한 한식조리사 도전프로젝트로 한식조리 전문 교과지도, 오픈강좌 및 무료시연회, 취업전교육 및 현장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캠프_07.21~23



시각장애가족 대상 여름 가족캠프가 지난 7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시각적인 제약으로 마음껏 여름휴가를 떠날 수 없는 시각장애가족에게 가족캠프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특히 시각장애가족의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시각장애가족과 자원봉사자 및 스태프까지 총 112명이 함께했는데, 시원한 바닷가에서 파도를 즐기는 것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캠프의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가족화합 프로그램으로 허브나라 비누 만들기, 해변 미니올림픽,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고, 가족이해 프로그램으로는 작은 음악회, 가족 포토타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이용자 노금만님은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캠프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여름 휴가를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시각장애이들에게 여름 가족 캠프는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쉼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가족캠프는 15년이 넘게 오랫동안 개최되어 온 기관의 전통프로그램이다. 가족캠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이용자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가족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여름휴가가 시각장애가족에게겐 어렵고도 특별한 일이다. 가족캠프는 앞으로도 매해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에서는 기업 사회공헌의 취지를 되살려 물심양면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셔서 가족캠프가 더욱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의 봉사과 지원이 있었기에 올 여름도 보다 시원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의 감정이 살아나는 것이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결이 아닐까요?



Program & Notice

행사 및 주요프로그램 안내

음악재활아카데미-서양음악교실

음악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진 성인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음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재활을 돕고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3월~11월
- 장 소 : 본 복지관 효명음악실, 그룹사운드실
- 문 의 : (02)880-0661~0666 음악점역팀

지역사회 접자교실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자 및 대체도서 제작법을 교육하여 시각장애 학생들의 필독서를 제작하고 인식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11월 중
- 장 소 : 한국학생접자도서관
- 문 의 : (02)880-0611 학습도서제작팀

학부모글쓰기코칭교실

시각장애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글쓰기와 북아트 만들기를 통해 상호 교류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11월 중
- 장 소 : 한국학생접자도서관
- 문 의 : (02)880-0613 학습도서제작팀

사랑나눔바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바자회를 통해 시각장애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며 바자회 수익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물품지원비로 활용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14일
- 장 소 : 불천역 4번출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앞
- 문 의 : (02)880-0826 지역사회지원센터

오디오형 뮤지컬 '너의 목소리가 들려' 공연 개최

시각장애인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과 함께 오디오형 뮤지컬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공연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27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내 중강당
- 문 의 : (02)880-0835 문화체육지원센터

취업전교육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이나 준비과정이 부족한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생 및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서류 작성법, 면접기술, 직장생활 예절 등을 교육하여 성공적인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중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접자도서관
- 문 의 : (02)880-0852 고용지원센터

근로사업장 이벤트

흰지팡이의날 행사 이벤트

근로사업장에서는 흰지팡이의날을 맞이하여 안마센터, 카페모아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13일~14일
- 장 소 : 카페모아 전지점, 안마센터

1주년기념 행사 이벤트

카페모아 가산점에서는 1주년을 기념하여 행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10일~14일
- 장 소 : 카페모아 가산점
- 문 의 : (02)880-0590~2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 수련회

근로사업장에서는 근로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중
- 장 소 : 미정
- 문 의 : (02)880-0590~2 근로사업장

취업자간담회(취업자 격려의 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한 취업자들을 직종별로 초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노하우와 우수근무 사례를 나눔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류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중
- 장 소 : 외부식당
- 문 의 : (02)880-0854 고용지원센터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제주지역 공연

관현맹인전통예술단에서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학교와 병원을 돌며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제주도민에게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알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18일, 14시
- 장 소 : 우도중학교
- 문 의 : (02)880-0693 관현맹인팀

- 일 시 : 2016년 10월 19일, 12시
- 장 소 : 제주대학교 병원
- 문 의 : (02)880-0692 관현맹인팀

시각장애아동 역사체험교실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일일 역사이론 교육과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역사에 대한 학습능력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6일/11월 17일
- 장 소 : 강화도 일대/부여 일대
- 문 의 : (02)880-0607 가족지원센터

2016년 산악종주 프로그램

문화체육지원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산악종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11월 2~3일
- 장 소 : 속리산
- 문 의 : (02)880-0830~5 문화체육지원센터

2016 실로암 콘서트

음악재활·전통음악 아카데미와 아동·청소년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교육생들이 실로암 콘서트 무대 경험을 통해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11월 11일 19: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볼
- 문 의 : (02)880-0661~0666 음악점역팀

북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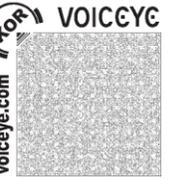
명사를 초청해 관련 작품을 함께 공유하며 시각장애인 및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독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일 시 : 2016년 11월 중
- 장 소 : 복지관 강당
- 문 의 : (02)880-0645 디지털도서관

보조공학기기 활용대회

보조공학기기 활용대회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조공학기기 학습 동기 부여 및 성취감 향상을 도모합니다.

- 일 시 : 2016년 11월 중
- 장 소 : 복지관 강당 및 교육장
- 문 의 : (02)880-0530~5 정보활용지원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2-139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하나은행 577-810008-221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8-121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인 개인수술지원	하나은행 577-910005-380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CMS 정기자동이체 신청	전화문의 홍보팀 02-880-0868~9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	(단위: 원)				
구분	복지관 후원	개인수술 후원	실로암요양원 후원	복지회 후원	총액
7월	7,662,320	785,000	5,722,900	1,755,065	15,925,285
8월	42,081,000	205,000	2,038,675	31,315,675	75,639,805

후원자 명단

복지관 후원

강문창 김미숙 김미혜 강민석 강은아 강은영 강이슬 강창구 강현희 강혜란 강희원 고미미 고선용 고선화 고슬기 공현정 광정아 광현용 구숙경 권정홍 권정희 권희정 김건철 김경국 김경아 김계심 김광훈 김규남 김근하 김기쁨 김기순 김기연 김기택 김다혜 김도연 김동진 김명애 김무는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정 김민경 김민선 김민식 김민정A 김민정B 김민혜 김병노 김보정 김상수 김상영 김선에 김선태 김선하 김성애 김성자 김성진 김성화 김성훈 김세민 김세연 김소정 김소희 김송지 김 수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숙현A 김숙현B 김순호 김슬기 김애리 김양수 김영미 김영순 김영은 김영준 김예리 김예은 김우도 김유섭 김유진 김윤진 김은민 김은애 김은영 김잔디 김재민 김재성 김재환 김정은 김주리 김준영 김지혜 김진수 김진영 김중현 김태희 김하연 김 한 김해민 김현도 김현순 김현정 김혜란 김효남 김효원 김희연 김희영 김희재 나가연 나민형 나서휘 남기윤 남우현 노계정 노성은 노위제 노하영 노형석 당호영 당화정 도윤희 류새미 명태순 문소란 문정이 문홍수 민경나 민광기 민병찬 민성환 민수진 박경선 박경숙 박고심 박귀영 박다현 박대삼 박도희 박문숙 박미경 박민규 박성도 박선희 박성주 박세근 박세희 박술민 박수호 박순이 박시은 박옥련 박용일 박은애 박인선 박정미A 박정미B 박정복 박정은 박주연 박주희 박지연 박지영 박지은 박하니 박현수 박현우 박혜민 박혜정 박화경 박영애 배상순 배은정 배종석 배지혜 백순복 변동규 변동훈 봉하중 서성교 서원호 서의승 서정석 서희경 성지영 성지혜 손명하 송경원 송우정 송은숙 송은정 송정미 송정섭 성재용 신나리 신덕수 신동선 신수진 신중현 신한나 신혜경 신홍연 신효숙 심권선 심재민 심재숙 안수빈 안옥선 안현미 안형진 양관동 양명신 양민정 양지혜 양혜령 양혜리 양혜진 양호열 엄경순 엄현희 오세용 오순주 오승범 오지수 오태훈 오하영 오하나 우창민 유인옥 유자영 유지혜 윤나라 윤대현 윤동혁 윤영현 윤보라 윤성재 윤은지 윤이근 윤인주 윤정희 윤주영 윤지현 이광성 이교순 이규성 이길원 이동형 이동훈 이로서 이만승 이면우 이명호 이미영 이민기 이민주 이민환 이봉희 이상철 이상현 이선례 이선미 이선진 이선아 이설한 이 송 이숙진 이승화 이예성 이예일 이옥경 이요한 이윤선 이원재 이은별 이은정 이은무 이은애 이재민 이재용 이재은 이정미 이정연 이정준 이정현 이주호 이자선 이자연 이자원 이자은A 이자은B 이자훈 이진용 이진중 이진용 이진형 이진희 이찬신 이찬영 이찬주 이창진 이창호 이태섭 이하나 이하영 이한미 이현근 이현숙 이혜지 이화정 임명숙 임수정 임은성 임종재 임재민 임현진 정선희 장수진 장용전 장은경 장인걸 장지혜 전경도 전경선 전아름 전영숙 전정자 전 진 정근우 정기창 정다운 정미선 정미실 정민지 정보성 정봉은 정상희 정성민 정성수 정수진 정연상 정영임 정옥자 정은정 정종민 정지혜 정태준 정하늘 정현정 정혜진 조근희 조남주A 조남주B 조몽근 조미경 조봉래 조원명 조유진 조은수 조은일 조은지 조은희 조진만 조소연 조보라 조태욱 천소승 최경록 최덕영 최동미 최두수 최병현 최승원 최영아 최은희 최재석 최중철 최찬상 최창홍 최태선 최희정 하은성 하은주 하중백 하효선 한석주 한숙주 한승연 한승진 한승희 한영실 한은지 한재경 한재용 합순식 함요한 함주영 함지현 허정희 한지현 홍관용 홍일선 홍정연 황소영 황순화 황정수 황지현

국민건강보험(관리지사) 디아이 떡임어린이집 블랙야크 새생명교회 서대문자원봉사센터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아모텍 아워홈 태양자동문 한 샘 해피민

개인수술 후원

김애경 백재은 이상훈 전순교 정인영 정향산 황지윤
은혜와평강교회 동부산교회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실로암요양원 후원

김경애 김광훈 김광희 김동희 김무경 김민혜 김병숙 김복희 김선태 김수정 김아름 김영선 김은철 김은희 김민경 김정숙 김종홍 김태용 김형도 김효남 나병택 도윤희 박성일 박영관 박옥련 박은애 박주희 박지영 박지훈 백하정 서문섭 성옥순 성지혜 신동선 신성만 신승열 신혜경 안정임 오태훈 유자영 이규민 이금선 이미경 이봉희 이선례 이선아 이수란 이숙경 이순희 이승옥 이영태 이윤주 이윤규 이정환 이진선 이진용 임은성 장혜순 전시환 전정희 정구연 정지혜 조경조 조미경 조봉래 조여수 조항금 지정규 최도영 최영훈 하영태 한재근 할다유 함요한 함은창 함지유 함지훈 함한식 함우진 함지현
남원추어탕 씨제이프리시웨이 우리은행(광주지점) 코리아마트 해피민 한 샘

복지회 후원

고지후 권수진 권영진 금옥연 김경애 김남식 김미경 김미라 김미혜 김민주 김성훈 김아름 김영철 김유민 김재우 김정택 김정옥 김주은 김현석 김현정 나병택 남정환 노하연 노현기 맹석재 박상근 박성철 박옥희 백근녀 서범수 신영실 윤재훈 이도근 이상정 이성표 이윤아 이한나 이행철 일 영 임영희 정대영 정정자 정지원 조희경 주수정 최동미 최상근 홍성현 황윤희
동일교회 베이비드림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